

다국적기업 WTO 가입 대비 對중국 투자전략 조정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보험·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확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 중·서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시경제환경 개선, 예를 들어 무역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유지, 내·외국인의 동등 대우,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가격 자율화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변화될 환경에 대비하여 투자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거시경제환경 변화로 수요 확대 예상

다국적기업이 對중국 투자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거시경제환경 변화 외에도 다음 몇 가지 점에 기인한다.

첫째는 베이징(北京)시의 2008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다. 향후 7년 동안 올림픽 관련 시설건설 등 올림픽 개최준비 작업으로 매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8년 올림픽 개최비용이 2,800억 위안(338억 달러)에서 최고 3,000억 위안(362억 달러) 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회 운영에 130억 위안(16억 달러), 경기장 건설에 170억 위안(21억 달러), 환경 개선에 713억 위안(86억 달러), 베이징의 인프라 확충에 1,800억 위안(217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ICP·TCP·BICP 등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원격지 교육, 베이징시의 전자정부 구현 등에 따른 정보화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 개최로 HDTV 등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구 1,200만 명인 베이징의 경우 2008년 디지털 TV 보급률이 20% 수준에 달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TV는 100만 대 정도로 전망된다.

둘째는 서부 대개발의 추진¹⁾이다. 서부 대개발은 ① 도로를 중심으로 철

1) 중국에서 서부라 함은 內蒙古·廣西·重慶·四川·貴州·雲南·西藏·陝西·甘肅·青海·寧夏·新疆 등의 12개 지역으로, 면적과 인구가 687km²와 3억 5,846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71.5%와 28.5%를 차지하고 있음. 1999년 6월 장쩌민(江澤民)이 서북 5개 지역 국

도·공항·천연가스 수송망·전력·통신·수리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② 생태환경 보호와 개선, ③ 산업 구조조정, ④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⑤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사회간접자본 확충²⁾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으로 고급 사양의 컴퓨터·CD 플레이어·DVD 플레이어·이동전화·디지털 TV·가정용 오락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넷째는 도·소매 등 유·무형의 유통시장 발전이다. 시장개방 확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도·소매 등 유통시장 진출이 가속되고, 정보화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다섯째는 의약산업의 발전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현재 7%를 점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의약산업에 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광부문의 발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기지화와 연구개발센터 병행 추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전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을 생산기지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년 동안 공산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공산품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①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철수·경영 정상화 등의 조치 강구, ② 공급과잉 상태인 일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억제, ③ 첨단기술 제품 생산시설의 중국으로의 이전, ④ 원·부자재 생산기지로의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바 등 일본기업이 이런 전략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둘째는 합작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과거 다국적기업은 주로 중국의 국유기업을 합작 파트너로 선정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장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이 다국적기업의 합작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유기업 개혁 좌담회에서 '새천년의 역사적 기회를 맞아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를 제기하면서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

2)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은 '수은해외경제' 2001년 5월호의 '중국 서부 대개발 추진으로 균형발전 도모' 참조.

이들 기업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수용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특수한 시장환경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투자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의 對중국 신규사업 투자는 거의 대부분 합자·합작·단독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 정부도 종전의 보수적인 태도를 바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향후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연구개발센터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단일 소비시장으로 삼아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투자경험을 살리는 한편, 개방 확대에 따라 유통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0년 말 현재 IBM, MOTOROLA, INTEL, NOKIA, FUJI, MICROSOFT 등 29개 다국적기업이 32개의 연구·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금융·보험·통신·유통·무역·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N이 발행하는 '2001년 세계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Fortune誌 선정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약 4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중국에 2,000여 개의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주로 컴퓨터·통신·전자·화학·자동차·의약 등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전체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3) 2001년 6월말 현재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중국 실제 투자액은 3,691억 달러로, 이중 합자, 합작, 단독 비중이 각각 45%, 20%, 33%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합작개발 등의 기타 투자임.

4) 중국은 1980부터 1999년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9.7%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며, 이의 28% 정도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실제 유입액은 3,076억 달러였음. 제10차 5개년 기간(2001~05) 동안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5년 간 2,50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인수·합병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투자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중국을 전 세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전략을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E

GE는 중국에 30개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총 투자 규모를 3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GE의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력사업 중의 하나인 항공기 엔진과 발전소 등의 수리 및 기술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으나, WTO 가입으로 이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OEM 방식의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다. GE는 공급과잉이거나 중국이 자체 기술로 생산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제품을 OEM 방식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셋째는 기존 투자기업의 경영 정상화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GE의 전 세계 평균 순이익률은 10%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에 진출한 GE의 30개 자회사 중 90%만이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GE의 중국 투자기업 이익률이 낮은 것은 투자진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IBM

IBM의 최우선 투자전략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들을 현지화하여 IBM의 전 세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현재 IBM의 중국 자회사는 판매 및 관리직 2,800명, 생산직 8,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非중국계 직원은 각각 100명과 10명에 불과하다. IBM의 중국 각 지역 자회사 중 상하이 자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계가 사장직을 맡고 있다. 중화권에 근무하는 非중국계 IBM 직원 중에서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직원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IBM은 1980년대에 중국에 진출하였지만 투자과실의 조기 회수보다는 중국을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과 더불어 전 세계 10대 전략거점의 하나로 육성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IBM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영업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 및 지식집약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도 점차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BM은 이런 변화가 자신이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IBM은 그 동안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인재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NOKIA

NOKIA는 중국 사업을 자신의 세계화 전략에 포함시키는 한편, 중국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동사의 발전으로 중국 통신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NOKIA의 중국 생산법인이 단순히 중국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은 지난해 실적에서 엿볼 수 있다. 장쑤(江蘇) 쑤저우(蘇州)에서 생산된 휴대전화기는 85%가, 베이징과 광둥(廣東) 둥관(東莞)에서 생산된 휴대전화기의 50%가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NOKIA는 중국에서의 생산기지 건설 및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기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에 싱왕(星網)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NOKIA는 여기에다 휴대전화기의 완성품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 용 전지·케이스·액정 등 30개의 부품 하청업체들을 입주시킴으로써 현대적인 휴대전화기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 SONY

SONY는 1993년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TV·음향기기 등 전자제품 생산에 주력해온 SONY는 일본·미국·독일·싱가포르·중국(베이징)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였다. 향후 베이징의 동북아 지역본부는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 가전제품 외에 영화·음반·오락·컴퓨터 등의 분야의 중국 진출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SIEMENS

SIEMENS는 이미 중국에 에너지·공장 자동화·정보통신·교통·의료 설

비·조명기구·부품 소재 등 분야의 59개 기업에 10억 마르크를 투자하였고 2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SIEMENS가 영위하는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것이다. SIEMENS는 1994년에 다국적기업 중 최초로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SIEMENS의 對중국 추가 투자계획은 당분간 없으며, 기존 투자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SIEMENS는 ABB, GE와는 발전 부문에서, NOKIA 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진출전략 수립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대체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도 자체 기업들의 특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방위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① 과거의 단순한 자금유치에서 탈피하여 첨단 기술·관리기법·인재 유치에 치중하고, ② 가공조립 위주에서 첨단 기술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며, ③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중국 진출전략을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제3국 시장 개척에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① 중국 내수 시장 개척 병행, ② 기업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원·부자재 조달기지로서의 역할 부여, ③ 국유기업 인수·합병 추진, ④ 협력기업 동반진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金 周 永】